

---

저자  
(Authors) 조경철

출처  
(Source)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5](#), 2014.4, 315-317(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9115>

APA Style 조경철 (2014). 「백제사의 관점에서 본 『삼국유사』 「흥법」 `법왕금살`조를 읽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5, 315-3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2 11:2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백제사의 관점에서 본 『삼국유사』 「홍법」  
 '법왕금살'조를 읽고

조 경 철(연세대)

본 발표문은 『삼국유사』 「홍법」 '법왕금살'조를 「홍법」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한계와 의의를 다루었다. 법왕의 재위기간이 짧고, 그가 백제사의 범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위덕왕이나 무왕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일연의 『삼국사기』의 불교관련 기록을 중시하는 서술방식과 법왕이란 시호가 홍법편의 취지에 잘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부연설명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왕금살조가 홍법편에 실린 이유

발표자는 백제 불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법왕금살조가 홍법편에 들어 간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의문시하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이편에 이미 무왕조가 실려 있던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법왕금살조의 내용가운데도 상당 부분이 무왕에 할애된 것으로 볼 때 『삼국유사』는 백제 무왕의 불교적 위상을 매우 높게 본 것 같다. 법왕금살조의 금살의 내용보다 실은 왕홍사[미륵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2. 왕흥사와 미륵사의 관계

발표자는 법왕대 왕흥사가 무왕대 미륵사로도 불렀다는 기사를 일연이 오해한 것으로 보고 왕흥사가 무왕대 완성될 때에도 왕흥사라 불린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왕흥사가 미륵사로도 불렀다는 견해가 있고, 또는 법왕대의 왕흥사는 위덕왕대 지은 왕흥사와 별개의 절이고 무왕대 지은 미륵사는 익산의 미륵사였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3. 미륵사와 도솔천

법왕금살조에는 무왕이 왕흥사를 완공했을 때 미륵사라고도 불렀다고 하면서 일연이 지은 찬에는 마치 법왕이 도솔천에 올라간 듯이 말하고 있다. 도솔천이 일연의 찬에 언급되어 법왕의 불교신앙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법왕금살조에 보이는 미륵사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때의 미륵신앙은 미륵상생신앙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4. 법왕 이전의 백제 불교계와 도침

백제 불교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로왕대 활동한 도침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물론 그가 전고려[고구려]의 승려이지만 그가 개로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으로 당시 백제 불교가 생각보다 널리 퍼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5. 『삼국유사』 원종홍법염촉멸신조의 대통사 관련기록

발표자가 인용한(각주 15번 아래) '법흥~것이다'란 부분을 세 주까지 포함하여 일연이 모두 작성한 것으로 본다면, 일연의 백제 성왕대의 불교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지요.